

# “월출산 기찬랜드 氣 힐링피서하세요”



## 연 50만명 이상 피서객 찾는 여름철 명소

영암군의 월출산 ‘기찬랜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매년 50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는 명소가 된 기찬랜드를 위해 영암군도 실내 물놀이장인 ‘황토스파’를 올해 개장하는 등 매년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월출산 기찬랜드가 지난 6일 개장한 이후 2만여명이 찾았다.

특히 흐린 날씨에도 2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실내 물놀이장인 ‘황토스파’ 덕분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에는 여름철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더 등 8종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월출산 기찬랜드는 천연계곡의 자연미와 인공폭장의 안전함을 겸

## 워터슬라이더 등 8개 시설에 실내 물놀이 ‘황토스파’ 개장 토요일엔 콘서트 등 이벤트

비한 자연형 야외폭장 6개소, 휴게정자, 휴게 음식점과 700여 대의 주차장 시설이 조성돼 있다.

또 야외 물놀이장은 월출산 맥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청정 자연계곡 물을 그대로 사용, 미네랄을 몸소

느낄 수 있어 이용객들의 호응도와 만족감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군은 기찬랜드 운영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13개 실과소와 2개 읍면으로 구성된 운영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고 있다.

지난해 입장 수입만 2억4000만원에, 주변 상가, 숙박시설 등의 수익 창출을 감안하면 5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이 군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기찬랜드를 중심으로 월출산과 용산천을 이어주는 ‘기찬릿길’ 18km 구간을 개통하고, ‘기찬강센터’, ‘기찬장터’ 등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월출산 기찬랜드는 최고 수질의 물을 공급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보완해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주시, 水公과 상수도협약 재협상 309억원 예산 절감했다

### 불합리한 독소조항 폐기

나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중인 지방상수도의 협약인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변경 협상을 벌인 끝에 30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나주시는 17일 “불합리한 독소조항 폐지와 위탁대가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나주시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수탁 재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4월 수자원공사와 ‘지방광역 상수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7월까지 20년간 상수도 위탁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환경부의 표준협약에 따라 맺었던 협약 내용 가운데 ▲물량 보정 및 인센티

브 제도 불합리 ▲불평등한 독소 조항과 고율의 재무적 할인율 ▲위탁대가 산정 방식 및 대가 상환 방식의 부적절 등이 뒤늦게 제기됨에 따라 재협상이 나왔다.

이 협약이 계속될 경우 체결 당시의 위탁 대가는 672억원이지만, 위탁 종료 시에는 12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초기에 다소 미진했던 환경부의 표준협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재정손실을 줄인 것인 보람”이라며 “나주시의 요구를 수용해준 한국수자원공사와 앞으로 유기적으로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 장흥서 대량 생산에 성공

### 가족 사료 신제품

장흥군은 17일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육성 신제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량생산에 성공한 신제품은 극조생종인 ‘그린팜’과 조생종인 ‘코그린’으로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랩 사일리지용으로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일리지를 가족에 주면 거세한우의 경우 일당중 체량이 22% 증가하고, 젖소의 경우 산유량이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관산을 부평리의 시험 포장에서 실증연구를 거친 후 지난해 하반기 장흥군 안양면과 관산읍에 종자 채종포 15ha를 설치, 올해 6월 초순 종자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제해신 연구개발과장은 “이번에 대량 생산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신제품은 일찍 수확이 가능해 벼 조기 이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5월에 집중되는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담양공고생 26명 ‘학생 4-H 도농교류체험활동’

담양공고(교장 장시준)는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주말을 이용해 1·2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학생 4-H 도농교류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4-H 정신 계승, 친환경 농업 이해하기, 유기농 채소 수확 체험, 한지 체험, 전통놀이 운동회, 모듬별 과제, 지역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험에 참가한 이기창군은 “처음에는 무더위 속에 주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장시준 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촌의 중요성과 친환경 농

업을 이해하고 농촌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양공고 학생 4-H회는 자투리 시간을 틈틈이 활용해 사철 꽃피는 화단 가꾸기, 학교농장 만들기, 국화 가꾸기 등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zg@kwangju.co.kr



## 전북

# 남원 산정지구 본격 개발착수

## 사업비 47억원 투입 2만3782㎡에 상업부지 조성

남원시 서부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남원역 앞 산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남원시는 산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2만3782㎡에 상업부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0년 남원역 주변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 주민설명회,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남원시는 산정지구가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도록 지구단위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건축물의 경우 외장재는 자연재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이미지

가 부합하도록 외관디자인에 통일성을 강조했다. 또 공원화 주변경관은 전통적인 도시문화요소를 연상케 하는 등 이 지역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도록 했다.

남원시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갖추어지고 활성화되면 낙후된 서부권 발전을 앞당기고 남원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남원역사가 이전된 뒤 주변지역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땅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없어 신속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김완주 지사 등 30명 고창 운곡습지 탐방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고창군 아산면 운곡습지를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도 한우재 환경보전과장, 새만금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 오기석 자연환경과장, 고창군 이강수 군수, 김인호 부군수, 임성남 환경위생사업소장, (주)경호연지니어링 이왕섭 전무, 주민대표 나창균씨 및 관계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지난 5월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MAB 국제조성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지

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방문단은 현장안내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경과보고 및 향후 관리방안을 청취하고 전북 유일의 내륙 탐사르습지이자,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설정된 운곡습지를 2시간 동안 탐방했다.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로 불릴 만큼 생물의 다양성을 갖춘 국내 유일의 저층 산지습지로, 지난 2010년부터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 환경부와 고창군이 공동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 1차 사업이 완료됐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여기가 어디? ... 전주 생태체험학습원이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 내에 최근 꽃무릇, 기생초, 설악초, 가우라 등 여름꽃들이 만개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옛 쓰레기매립장 5만6000여㎡ 에 토사를 덮은 뒤 15만본의 꽃을 심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 내에 최근 꽃무릇, 기생초, 설악초, 가우라 등 여름꽃들이 만개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옛 쓰레기매립장 5만6000여㎡ 에 토사를 덮은 뒤 15만본의 꽃을 심었다.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 “정읍 남고학당 예절학교에 오세요”

### 전통예절·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 초등학생 대상 ... 26일까지 신청

조선시대 호남 성리학의 대가 일재 이항선생이 후진을 양성하던 남고서원에서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3박4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6기 여름방학 남고학당 예절학교를 운영한다.

남고학당 예절학교는 전통예절, 인성교육, 서예, 기초한자, 민요체험, 전통배례법, 다도예절, 압화부채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물레마유원지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남고학당 예절학교는 지난 2004년 개강 이래 2013년까지 15기 동안 330명의 학생들이 참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는 예절교육장이자 전통문화체험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북면 관계자는 “남고학당 예절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올바른 효와 예절을 깨우치고 바른 인성을 함양



지난해 남고학당 예절학교 모습.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오는 26일까지이고, 북면사무소(063-539-7093)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 단신

### 고창군, 버스터미널서 테러대비훈련

고창군은 17일 2013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고창대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8개 기관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창버스터미널에서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인 고창버스터미널에서 가상적군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화학가스를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을 전달받은 고창대대 5분 전투대기부대와 경찰타격대가 적을 격멸하기 위해 출동했으며, 소방서가 화재를 진압하고, 119 긴급구조반과 보건소가 질식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환자를 구조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 입구에 임시주차장 완공

남원시는 주천면 육모정 입구에 85면(버스 12면 승용차 73면)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시비 2억원을 들여 지난 15일 완공했다.

지리산 둘레길 중 1코스인 육모정을 찾는 탐방객은 매일 5만5000명에 이르며, 하루 180여대의 승용차와 20

여대의 버스가 찾고 있다. 그러나 기존 육모정 주차장은 20면에 불과, 지도 60호선 양쪽 갓길에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에 따라 육모정 입구 도유지 4522㎡를 이용,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부안 변산면 다문화가정 여름문화체험 행사

부안 변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문화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여름문화 체험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3년째 열린 이번 행사는 변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대명론도 변산지점의 후원으로 다문화

가정 13가정 28명이 참가했다.

다문화가정은 대명 아쿠아월드에서 실내 물놀이 시설과 야외 파도풀 체험을 즐겼다. 체험에 소요되는 수영복 대여와 아쿠아월드 입장 등 100만원 상당의 경비는 전액 대명리조트 측에서 부담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yj0681@

### 정읍시, 생활편의 시책 등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정읍시는 17일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안과제는 ▲시민의 생활편의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농촌 소득증대 방안 등이 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9월에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적용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선정해 시상(최우수상 100만원 등)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